

학령전 아동의 대화유창성 및
의사소통 회복전략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권혜주

학령전 아동의 대화유창성 및
의사소통 회복전략 평가

지도 신 지 철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권 혜 주

권혜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년 6월 일

차 례

표 차례	iii
국문 요약	iv
제1장 서론	1
1.1 이론적 배경	1
1.1.1 대화유창성, 의사소통 단절, 의사소통 회복전략 개념	1
1.2.2 대화유창성과 의사소통 단절시 의사소통 회복전략 선행연구	3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1.3 연구 문제	9
제2장 연구 방법 및 재료	10
2.1 연구 대상	10
2.2 연구 방법	12
2.2.1 실험 절차	12
2.2.2 자료 분석	13
2.2.3 신뢰도 분석	13
2.2.4 통계 분석	14
제3장 결과	15
3.1 대화유창성	15
3.1.1 전체 발화 중 의사소통 단절 횟수	15
3.1.2 전체 발화 중 의사소통 단절 회복 소요 시간의 비율	16
3.1.3 전체 발화 중 침묵 시간의 비율	17
3.1.4 아동의 대화정보력 점수	17
3.1.5 도입된 주제의 수	20
3.2 의사소통 단절시 나타나는 회복전략	21
3.2.1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회복전략의 종류	21

3.2.2. 의사소통 단절 중 회복 성공 비율	26
제4장 고찰	28
제5장 결론	31
참고 문헌	33
부록	37
영문 요약	46

표 차례

표 1. 연구대상 정보	11
표 2. 의사소통 단절 횟수	15
표 3. 의사소통 단절 횟수에 대한 사후검정	15
표 4. 의사소통 단절 회복 소요 시간의 비율	16
표 5. 의사소통 단절 회복 소요 시간의 비율에 대한 사후검정	16
표 6. 침묵 시간의 비율	17
표 7. 침묵 시간의 비율에 대한 사후검정	17
표 8. 정보력 1: 청자가 느끼는 아동의 일방적인 발화 비율	18
표 9. 정보력 1에 대한 사후 검정	18
표 10. 정보력 2: 청자가 느끼는 어색한 침묵구간의 비율	18
표 11. 정보력 2에 대한 사후검정	19
표 12. 정보력 3: 청자가 느끼는 유용한 정보교환의 양	19
표 13. 정보력 3에 대한 사후검정	19
표 14. 도입된 주제의 수	20
표 15. 총 회복전략 중 수정 유형과 반응 유형의 비율: 연령 내 비교	21
표 16. 총 회복전략 중 수정 유형과 반응 유형의 비율: 연령별 비교	22
표 17. 총 회복전략 중 수정 유형과 반응 유형의 비율에 대한 사후검정	22
표 18. 총 회복전략 중 각각의 전략이 차지하는 비율	23
표 19. 총 회복전략 중 각각의 전략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사후검정	25
표 20. 의사소통 단절 회복에 성공하는 비율	26
표 21. 의사소통 단절 회복에 성공하는 비율에 대한 사후검정	27

국 문 요 약

학령전 아동의 대화유창성 및 의사소통 회복전략 평가

언어능력 중 화용영역은 언어규칙을 실제로 사용하는 능력으로, 실생활에서의 언어사용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다. 화용영역은 대부분의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반드시 정확한 평가와 중재가 필요한 영역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화용능력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는 없으며, ‘이야기 다시말하기’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 비공식적인 평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청자와의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고려한 대화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화평가에서 관찰되는 대화유창성과 의사소통 단절시 회복전략은 화용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외에서는 많은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가 미미할 뿐 아니라, 대화유창성에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 5, 7세 정상발달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유창성과 의사소통 단절시 회복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발달 과정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남아 58명(3세 18명, 5세 19명, 7세 2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내용은 처음 대면하는 여자 성인과 단둘이 대화를 하는 것으로, 그림 컷을 한 장씩 뽑아서 대화주제를 도입하였다. 여자 성인 실험자는 실험 목적을 알려주지 않고 실험에 임하도록 하였다. 대화 주제를 도입하는 부분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정형화 하였다. 모든 실험은 비디오 녹화되었으며, 실험 후 연구자가 전사하여 100차례의 대화구간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먼저, 대화유창성을 측정하는 요소로 1) 전체 발화 중 의사소통 단절의 횟수, 2) 전체 발화 시간 중 의사소통 단절 후 회복까지 걸린 시간, 3) 전체 발화시간 중 침묵이 차지하는 시간, 4) 검사자가 느끼는 아동 발화의 정보력정도, 그리고 5) 새롭게 도입된 대화 주제의 수를 측정하고, 또한, 의사소통 단절과 관련하여서는, 1) 의사소통 단절 회복전략과 2) 회복 성공 비율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침묵구간이 차지하는 비율, 청자가 느끼는 아동의 어색한 침묵구간은 유의하게 줄어들어, 침묵에 대한 변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달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자가 느끼는 아동의 일방적인 발화정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었고, 유용한 정보교환의 양은 늘어났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자가 느끼는 대화유창성도 유의하게 좋아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의사소통 단절 횟수와 단절 회복에 사용된 시간의 비율도 줄어들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절에 대한 요소도 발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의사소통 단절 회복에 성공한 비율은 5세와 7세가 3세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5세와 7세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단절 성공은 3세에서 5세까지 유의하게 발달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단절 회복 시 사용한 전략의 종류에는, 3세와 5세 아동은 수정유형보다 반응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7세 아동은 두 유형 간 차이가 없었다. 반응유형 중에서는, 3세 아동은 단순반복을 7세보다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여 연령이 어릴수록 단순반복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부적절한 반응을 3세 아동이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여, 3세 아동이 대화 수정에 덜 유창함을 알 수 있었다. 수정 유형 중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확한 구어 반응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아동의 대화유창성 발달을 수치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 아동의 의사소통 단절 회복전략 발달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핵심되는 말 : 아동, 대화평가, 대화유창성, 의사소통 단절, 대화 단절, 회복전략

학령전 아동의 대화유창성 및 의사소통 회복전략 평가

<지도교수 신 지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권 혜 주

제1장 서론

1.1. 이론적 배경

1.1.1. 대화유창성, 의사소통 단절, 의사소통 회복전략 개념 정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참여자가 메시지를 교환하는 과정으로, 의도하는 메시지를 부호화하기, 전달하기, 부호풀기를 모두 포함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¹ 의사소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도(intent)가 가장 중요하다.² 여기에서 의도란, 화자 입장에서는 말하고자하는 욕구이며, 청자는 화자의 말을 듣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화자의 목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화자의 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준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의사소통 중에 의사소통자의 관심은 의사소통 형식이 아닌 내용에 있어, 말(speech), 사인(sign), 쓰기(writing), 그리기(drawing), 행동하기(mime), 보여주기(show)등 다양한 형식이 사용될 수 있다.³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전후관계를 맺는 문맥에서 적절하고 의미있는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규칙을 적용하는 능력으로, 언어학적 요인

뿐만 아니라, 언어외적인 인지적·감성적 요인들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²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지식은 화용적 지식(pragmatic knowledge), 담화지식(discourse knowledge), 사회언어적 지식(sociolinguistic knowledge)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서로 중복되어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⁴ 화용 능력을 대변하는 능력의 예로는, 대화 주고받기(turn-taking), 문맥에 따른 화행 사용(contextual variation in the use of speech act), 이야기(narratives), 주제 유지와 변경(initiating conversational exchange), 전제하기(presupposition), 그리고 대화 단절 발견과 수정(recognizing and repairing communicative breakdown)이 있다.⁵

유창한 대화(fluent conversation)는 여러 가지 화용 능력 중에서도 의사소통 단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⁶ 비유창한 대화는 많은 의사소통 단절이 일어나고, 단절이 회복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침묵(silent) 시간이 길거나, 한 쪽 파트너가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대화 주제(topic)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도 대화는 유창하지 못하게 된다.⁶ 대화의 유창성(conversational fluency)을 측정하는 요소로는 1) 대화단절을 회복하는 데에 사용된 시간, 2) 정확히 교환된 정보의 양, 그리고 3) 침묵이나 끊김 없이 말하는 시간이 있다.⁷

의사소통 단절(communication breakdown)이란, 주어진 메시지를 청자가 이해하지 못하여 상호간에 혼란이 있는 상태이다.³ 의사소통 중 명시적인 불확신의 표시나 직접적인 호소로 의사소통에 단절이 일어나게 된다.⁸ 의사소통 단절의 횟수는 대화능력이 좋아짐에 따라 적어지지만 대화단절은 평생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다.³ 의사소통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단절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며, 단절에 따른 적합한 회복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³

의사소통 회복전략(repair strategy)이란, 의사소통 실패를 겪었을 때 신호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의사소통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⁹ 또, 대화 상대방에게 자신이 처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의미를 타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⁸ 아동의 의사소통 회복전략은 의사소통 의도의 발달, 청자인식 능력의 발달,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발달 등을 반영하는 능력이다.⁹ 의사소통 회복전략을 분류하는 데에는 다양한 접근이 있다. 먼저, 의사소통 전략을 회피 전략과 성취 전략으로 나누어 본 경우가 있었다.¹⁰ 훗날 이 전략을 더 세분화하여 회피 전략, 성취전략에 ‘주고받기전략(turn-taking strategy)’과 ‘상호작용 전략’을 포함시켜 연구하기도 하였다.¹¹⁻¹³ 또 다른 분류로는, 의사소통 단절 양상에 따라, 실험자가 피실험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단절이 일어난 경우의 회복전략(expressive 전략, 이하: 수정 전략)과 피실험자가 실험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단절이 일어난 경우의 회복전략(receptive 전략, response, 이하: 반응 전략)으로 나누어 본 연구도 있다.^{3,14} 첫 번째의 분류 체계를 사용한 연구들은, 주로 외국어학습자의 의사소통 단절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의사소통 단절을 ‘실험자가 피실험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단절이 일어난 경우’만을 중심으로 실험을 설계하여 진행하였고, 의사소통 단절은 어휘력(lexicon)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의 분류체계를 사용한 실험은, 주로 청각장애인들의 대화능력을 측정하였으며, 실험 구성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채집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ye-Murray(1994)³의 회복전략 분류를 수정한 Jenkins(1997)¹⁴의 분류를 약간 변경하여 재구성하였다.

1.1.2. 대화유창성과 의사소통 단절시 의사소통 회복전략 선행연구

기존에 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화 발화 수집의 방법으로는 다음의 종류가 있었다. 먼저, 인터뷰 방식이 있다.¹⁴⁻²⁰ 이들은 여러 개의 주제를 선정한 다음, 각 주제마다 일정한 순서의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여 발화를 유도한 후, “응, 그래, 그래서?” 등의 간단한 응답 반응만을 하며 대화를 유지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대화를 채집한 경우도 있었는데,¹³ 도구의 순서와 질문양식을 동일하게 제시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화 주제(topic)를 그림카드와 문장으로 만든 후, 무작위로 카드를 뽑아서 나온 주제에 대하여 아동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방법이 있었다.¹⁴ 인터뷰와 스크립트의 선행연구들은 실험자의 개입을 최대한 구조화하여, 실험자의 대화상대방으로서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실험대상자의 반응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가능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며, 기존의 인터뷰나 스크립트 방식으로는 ‘교사의 메시지를 아동이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의사소통 단절’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이 때의 전략 또한 살펴보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enkins(1997)가 실험했던 대로, 대화주제를 그림카드와 문장으로 만들어 무작위로 제시한 후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선택하였다.¹⁴

대화유창성은 Erber(1996)⁷이 제시한 개념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각장애아동의 대화유창성을 연구한 Tye-Murray(2003)의 결과에 의하면, 4~5세의 청각장애아동은 건청아동에 비하여 대화단절 측면에서는 대화 단절 횟수가 더 많고, 대화단절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더 길었다.⁶ 청각장애 성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단절 횟수는 비슷하였지만 적절하게 회복된 단절은 정상성인이 더 많았다.²¹ 회복전략으로는 청각장애아동은 건청아동에 비해 비언어적 반응(nonlinguistic response)를 많이 사용하였고, 건청아동은 반복(repeat)을 가장 많이 사용한 데 비해 청각장애아동은 수정(revise)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대화유창성의 다른 요소를 살펴보면 대화의 정보력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청각장애아동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체 대화 중 침묵(silent)이 차지하는 비율도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의사소통 단절과 의사소통 전략은 화용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많은 실험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먼저, 정상군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단절과 전략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정상 아동이라면 의도적인 의사소통이 출현함과 동시에 대화 전략이 함께 발생한다고 한다.²² 다만 2, 4, 6세간 의사소통 단절 횟수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²³ 의사소통 전략 양상으로는, 8~24개월 아동은 반복(repetition), 수정(modification)을,²² 12개월 아동은 반복(repetition), 첨가(addition), 수단변경(changing the signal)을 주로 사용한다.⁹ 또 2세 아동은 아동은 4, 6세 아동보다 단어반복과 구반복의 유의하게 많이 사용한다.²²

정신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있는데, 의사소통 단절 횟수는 지능지

수(Intelligence Quotient, 이하 IQ)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²⁴ 의사소통 단절을 알아차리는 빈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인들은 언어연령일치집단보다 빈도가 적었다.²⁵ 의사소통 전략으로는, 성인들은 반복(repetition)을 가장 즐겨 사용하지만,^{26,27} 9~11세 언어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정상군과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의 종류에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²⁸ 그러나 자폐 성장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지체인과 비교하면 반복(repetition)을 적게 사용하고 이야기 확장(expansion)과 수정(revision)을 더 즐겨 사용한다.²⁹

청각장애 아동에 대해 연구한 결과, 구어 의사소통(oral communication)보다 구어와 수화를 함께 사용한 의사소통(total communication)에서 대화단절이 더 많이 일어났다. 의사소통 전략으로는 응답하기(feedback)가,¹⁴ 명료화요구로는 ‘부정확한 구어(non-specific type)’가²⁹ 가장 많이 나타났다.

외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단절과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연구도 있다. 그 결과, 유창한 언어성취를 이룬 경우가 의사소통 단절 횟수가 적었다.²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서는, 유창한 화자일수록 회피전략보다 의역전략을,² 직접적인 도움요청보다는 소극적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⁸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화용영역은 거의 모든 언어장애 아동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정신지체 아동은 발달 초기 몸짓(gesture)의 사용부터 화용적 결함이 나타나, 대화 시 부적절한 반응을 하기 쉽고 소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한다.³¹ 자폐 아동 역시 가장 큰 언어문제가 화용영역으로, 대화 시 아동은 주제를 유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³⁰ 단순언어장애 아동 역시 화용영역에 문제를 겪는데, 일반아동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적고,³² 대화에 접근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보인다.³³ 의사소통 단절과 전략 측면에서는, 명료화 요구에 대하여 수정하는 능력이나 명료화를 요구하는 기능에서도 문제를 보인다고 한다.³⁴ 이처럼 화용영역은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반드시 정확한 평가와 중재가 필요한 영역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화용능력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는 없으며, ‘이야기 다시말하기’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34,35} 비공식적인 평가로 활용되고 있다. 대화나 의사소통 측면에서의 평가는 매우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Communication and Symbolic Behavior Scales(이하 CSBS)³⁶가 유일하다. 화용측면에서 자발화 수집을 통하여 의사소통 의도를 평가하기도 하는데,³⁰ 이는 화자인 아동을 중심으로 발화의 의도를 평가하는 체계이며, 청자와의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고려한 대화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대화유창성과 의사소통 단절시 회복전략은 화용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주로 장애군의 의사소통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비교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의사소통 회복전략을 나누는 체계가 각자 다르고, 연령군 역시 광범위하여 자료들을 평가의 기준(criteria)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3, 5, 7세 정상발달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유창성과 의사소통 단절시 회복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발달 과정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는 먼저, 대화유창성을 측정하는 요소로 Erber(1996)⁷가 제시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다음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1) 전체 발

화 중 의사소통 단절의 횟수, 2) 전체 발화 시간 중 의사소통 단절 후 회복까지 걸린 시간, 3) 전체 발화시간 중 침묵이 차지하는 시간, 4) 검사자가 느끼는 아동 발화의 정보력 정도, 그리고 5) 새롭게 도입된 대화 주제의 수. 의사소통 단절의 기준은 김지숙 등(2004)의 기준에 따라, “교사와 아동간의 대화가 유관하게 연결되다나 내용 연계의 부적절성에 의해 대화 연쇄가 중단되는 것”으로 하였고,¹³ 세부적인 규정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단절 후 회복되는 기준은, 청자가 화자의 말을 이해하여 명백한 구어, 표정, 몸짓으로 표현한 후, 다른 대화 문맥으로 넘어갔을 경우를 회복되었다고 보았다.²¹ 단절부터 회복까지의 시간은 “Sony Sound Forge 7.0” 음성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사소통 단절을 일으킨 화자의 발화 직후부터 의사소통 단절이 회복된 후 시작하는 발화 직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⁶ 전체 발화 중 침묵이 차지하는 시간 역시, “Sony Sound Forge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화자의 차례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화자의 유의미한 차례가 시작되는 직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⁶ 다음화자의 유의미한 차례로는, 미소·끄덕임·고개젓기 등의 몸짓(gesture)이나 표정, 행동 등 다양한 형식을 모두 유의미한 메시지로 간주하고, 발화를 생각할 시간을 벌기위한 간투사(예: 음.. 어..)는 유의미한 차례가 아닌 침묵구간으로 분류하였다. 유의미한 메시지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하여, 음성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동영상 자료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아동의 발화의 정보력 정도는 3가지 요인에서 5점 척도로 만들어서,⁶ 연구자가 아동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였다(부록 2). 새롭게 도입된 대화 주제의 수는, 자연스러운 주제 확장이 아니라, 주제의 고갈로 인해 새롭게 도입된 대화 주제의 수를 체크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 단절과 관련하여, Owens(2004)는 의사소통 단절 회복전략과 회복 성공 빈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³⁷ 따라서, 먼저 연령별로 의사소통 단절 회복전략의 발달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의사소통 단절 회복전략 사용반응을 분석하였다. 의사소통 전략은 Tye-Murray(1994)³의 회복전략 분류를 수정한 Jenkins(1997)¹⁴의 분류를 변경하여 재구성하였고, 재구성 할 때에는 Celce-Murcia 등(1995)과 Dornyei 등(1997)을 바탕으로 제작한 김지숙 등(2004)의 분류체계를 참조하였다(부록 3).¹¹⁻¹³ 또, 전체 의사소통 단절 중 회복에 성공한

전략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였다.

1.3.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화유창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 가. 전체 발화 중 의사소통 단절의 횟수는 적어질 것이다.
 - 나. 전체 발화 중 의사소통 단절을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의 비율은 적어질 것이다.
 - 다. 전체 발화 중 침묵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율은 적어질 것이다.
 - 라. 대화의 정보력 점수가 높아질 것이다.
 - 마. 대화에 사용되는 주제의 수가 적어질 것이다.

- 2) 연령에 따라 의사소통 단절시 나타나는 회복전략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는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 가.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회복전략의 종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절 중 회복에 성공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제2장 연구 방법 및 자료

2.1. 연구 대상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3, 5, 7세 정상발달 남아 총 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상발달 대상자의 기준은 1) 부모교사설문지를 통해 신체발달·언어·인지·청력·사회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부록 4), 2) 3, 5세 아동은 취학전 아동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³⁸를 실시하여 생활연령과 6개월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며, 3) 7세 아동은 구문의미이해력검사³⁹ 결과 -1 표준편차 이상에 속하고, 4) 모든 연령군에서 그림어휘력검사⁴⁰ 와 아동용 한국판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K-BNT-C)⁴¹ 결과 -1 표준편차 이상에 속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모든 아동에게서 부모님께 실험 동의서를 받았다(부록 5).

남아만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남아는 여아보다 언어발달이 느리다고 알려져 있다.³⁷ 따라서 남녀 아동을 동시에 수집했을 경우에는 그 발달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쪽의 성별만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언어장애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출현률이 높기 때문에,³⁷ 본 실험은 남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화상대 실험자는 언어치료사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실험자는 아동과 처음 대면하는 여성 실험자로 하였다.

대상 연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3, 5, 7세를 선정하였다. 먼저, 아동은 일반적으로 2세가 되면 대화 상대방에게 반응할 수 있고, 2~3 차례정도 대화에 끼어들 수 있다.¹ 아동들은 3세경이면 상대방의 지식 정도를 추론할 수 있으며,^{42,43} 3세 아동은 상대방의 지식을 추론하여 대화에 적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⁴³ 또한 대화전략 중 의미협상 전략은 5세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44,4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장기에 접어들어 대화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3세 아동과, 대화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5세 아동, 대화 능력과 언어능력이 좀 더 성숙한 7세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 정보

연령군	사례 수	연령 평균 (표준편차)
3세	18	46(±2.83)개월
5세	19	69(±3.75)개월
7세	21	93(±3.76)개월

2.2. 연구 방법

2.2.1. 실험 절차

본 연구에서는, Jenkins(1997)가 실험했던 대로,¹⁴ 대화주제를 그림카드와 문장으로 만들어 무작위로 제시한 후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대화주제는, 김성수 등(2008)¹⁵이 Evans 등(1992)¹⁷를 참조하여 구성된 아동의 일상에 친숙한 20가지 이야기목록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실험 대상연령이 본 연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연령과 성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약간 변경하였다(부록 6). 우선 아동이 특정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경우 대화 주제로 삼을 수 없는 문항들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였다(예: 팔이 부러진 이야기, 애완동물과 겪은 이야기, 음식만들기, 바다에 갔던 이야기). 그리고 3~4세까지의 아동들은 과거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언어표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⁴⁸ 과거의 경험의 자세한 기억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은 삭제하였다(예: 장난감을 잃어버린 이야기). 또, 애매모호한 주제에 대해서는 삭제하였다(예: 나들이 갔던 이야기). 새로운 문항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것은,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과거 기억능력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문항들로 선정하였다(예: 친구와 싸운 이야기, 부모님과 목욕한 이야기, 외식한 이야기, 마트에 갔던 이야기). 변경 후, 경력 10년 이상의 언어치료사 3인에게 검증을 받았다. 주제 그림은 삽화전문가에게 의뢰하였으며, 그림 역시 완성 후 경력 10년 이상의 언어치료사 3인에게 검증을 받았다(부록 7). 실험방법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Jenkins(1997)의 실험방법을 따라,¹⁴ 각 주제의 대화의 도입부만을 정형화하고, 부수적인 질문은 정형화하지 않았다. 각 주제의 대화 도입부는 김성수 등(2008)을 참고로 하였다(부록 8).¹⁵ 검사의 객관성을 위해 검사자에게 실험의 목적은 알려주지 않고 절차만을 알려준 후 검사에 임하도록 하였다. 검사자는 검사의 하나의 주제를 뽑아 그에 대하여 아동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고, 검사자의 사적인 이야기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했다. 그러나 검사자와

아동 모두 서로의 발화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면서 대화를 진행하도록 주의를 주었다.⁶ 주어진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로 대화가 확장 될 경우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주제에 대한 소재의 고갈로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에는 다른 그림카드를 뽑아서 대화의 새로운 주제로 도입하였다. 도입하는 대화 주제의 개수는 제한이 없으며, 검사자는 아동과 자유롭게 20~25분간 대화하도록 하여 발화를 수집하였다. 발화 수집 후, 연구자는 아동에 대한 정보는 일체 듣지 않고 먼저 대화를 음성파일로 들어본 후, 바로 연구자가 아동의 정보제공력⁶(부록 2)을 평가하였다.

2.2.2. 자료 분석

자료는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수집된 자료는 1주일 이내에 연구자가 검사자의 도움을 받아 전사하였다. 담화 샘플은 수집 앞부분의 관계형성 시간을 제외하고, 아동이 연속적으로 100 차례의 대화를 한 구간을 분석한다. 한 차례(turn)의 기준은 한 화자의 말이 시작되어 다음화자의 말로 넘어가기 직전까지를 1 차례로 보았다. 또, 같은 화자가 말을 했더라도 문장과 문장 사이에 2초의 공백이 있을 경우는 다른 차례로 간주하였다.¹⁷

2.2.3. 신뢰도 분석

신뢰도 측정은 음성분석에 익숙한 한 명의 언어학 전공 석사였다. 무작위로 각 연령별 1명의 의사소통 샘플을 뽑아서 샘플전체를 연구자의 자료분석기준에 의거하여 분석한 후, 연구자의 분석과 비교하여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단절 횟수는 94.3%, 단절 소요 시간 비율은 82.7%, 침묵구간의 시간 비율은 72.1%의 일치도를 보였다.

2.2.4. 통계 분석

3, 5, 7세의 연령별로, 의사소통 단절 횟수, 총 발화시간 중 의사소통 단절이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 총 발화시간 중 차례 사이의 침묵이 차지하는 시간(%), 아동 대화의 정보력 점수, 전체 발화 중 주제 변경 횟수를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으로 투키 사후분석을 하였다. 연령별로 선호하는 의사소통 회복전략의 사용 종류를 비교하기 위하여는, 한 아동이 사용한 회복전략의 총 수 중에서 하나의 전략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연령별로 평균을 비교하였다. 역시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으로 투키 사후분석을 하였다. 또 연령별로 수정유형과 반응유형의 비율을 반복측정분산분석(paired t-test)을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제3장 결과

3.1. 대화유창성

3.1.1. 전체 발화 중 의사소통 단절 횟수

의사소통 단절 횟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단절 횟수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F(2,75) = 4.322$, $p = .18$ (표 2). 군별로는 7세가 3세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은 단절을 보였고, 5세와 3세, 5세와 7세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

표 2. 의사소통 단절 횟수

연령군	평균(±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F
3세	6.44(±3.23)			
5세	5.21(±2.76)	37.831	2	4.322*
7세	3.66(±2.86)			

* $p < 0.05$.

표 3. 의사소통 단절 횟수에 대한 사후검정

	연령군	평균오차(I-J)	표준오차
3세	5세	1.23392	0.97196
	7세	2.77778*	0.94918
5세	7세	0.93563	0.93563

* $p < 0.05$.

3.1.2. 전체 발화 중 의사소통 단절 회복 소요 시간의 비율

전체 대화시간 중 의사소통 단절을 극복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단절 횟수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F(2,164) = 4.332$, $p = .01$ (표 4). 군간에는, 3세가 7세보다 유의하게 많은 단절비율을 보였고, 5세는 다른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표 4. 의사소통 단절 회복 소요 시간의 비율

연령군	평균(±표준편차)	제공합	자유도	F
3세	6.28(±3.91)			
5세	3.92(±2.63)	82.42	2	4.332*
7세	2.16(±3.08)			

* $p < 0.05$.

표 5. 의사소통 단절 회복 소요 시간의 비율에 대한 사후검정

연령군	연령군	평균오차(I-J)	표준오차
3세	5세	2.35792	1.06377
	7세	4.12090*	1.03883
5세	7세	1.76298	1.02401

* $p < 0.05$.

3.1.3. 전체 발화 중 침묵 시간의 비율

전체 대화 시간 중, 대화 차례 사이의 침묵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2,1039) = 13.659$, $p = .001$ (표 6). 연령별로는 7세와 5세가 3세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은 침묵구간을 보였고, 5세와 7세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표 7).

표 6. 침묵 시간의 비율

연령군	평균(±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F
3세	30.00(±5.32)			
5세	23.30(±5.57)	519.815	2	13.659***
7세	19.73(±7.26)			

*** $p < 0.001$.

표 7. 침묵 시간의 비율에 대한 사후검정

	연령군	평균오차(I-J)	표준오차
3세	5세	6.70412*	2.02911
	7세	10.26859***	1.98155
5세	7세	3.56448	1.95317

* $p < 0.05$. *** $p < 0.001$.

3.1.4. 아동의 대화정보력 점수

아동의 대화정보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수도 좋은쪽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띠었다. 정보력 1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방적인 아동의 발화가 유의하게 줄어들어 결과를 보여주었다, $F(2,11) = 8.527$, $p = .001$ (표 8). 각 연령별로는, 7세가 3세보다 일방적인 발화가 유의하게 적었고, 5세는 다른 연령군과 차이가 나

지 않았다(표 9). 정보력 2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색한 침묵구간이 유의하게 적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F(2,24) = 18.004, p < .001$ (표 10). 연령별로는, 5세가 3세보다, 7세가 5세보다 유의하게 적은 침묵구간을 보여주었다(표 11). 정보력 3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미있는 정보교환이 유의하게 많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F(2,30) = 12.963, p < .001$ (표 12). 연령별로는 5세가 3세보다, 7세가 3세보다 유의하게 의미있는 정보교환이 많이 이루어졌다(표 13).

표 8. 정보력 1: 청자가 느끼는 아동의 일방적인 발화 비율

연령군	평균(±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F
3세	3.00(±1.37)			
5세	2.31(±1.25)	11.371	2	8.527**
7세	1.47(±0.81)			

** $p < 0.01$.

표 9. 정보력 1에 대한 사후검정

	연령군	평균오차(I-J)	표준오차
3세	5세	0.68421	0.37983
	7세	1.52381***	0.37092
5세	7세	3.56448	0.36563

*** $p < 0.001$.

표 10. 정보력 2: 청자가 느끼는 어색한 침묵구간의 비율

연령군	평균(±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F
3세	2.89(±0.76)			
5세	2.00(±1.25)	12.460	2	18.004***
7세	1.47(±0.81)			

*** $p < 0.001$.

표 11. 정보력 2에 대한 사후검정

연령군		평균오차(I-J)	표준오차
3세	5세	0.8889**	0.27363
	7세	1.60317***	0.26721
5세	7세	0.71429*	0.26340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12. 정보력 3: 청자가 느끼는 유용한 정보교환의 양

연령군	평균(±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F
3세	2.33(±0.91)			
5세	3.42(±1.02)	15.17	2	17.963***
7세	4.10(±0.83)			

*** $p < 0.001$.

표 13. 정보력 3에 대한 사후검정

연령군		평균오차(I-J)	표준오차
3세	5세	-1.08772**	0.30224
	7세	-1.76190***	0.29516
5세	7세	-0.71429*	0.29095

* $p < 0.05$. ** $p < 0.01$. *** $p < 0.001$.

3.1.5. 도입된 주제의 수

새롭게 도입된 주제의 수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0).

표 14. 도입된 주제의 수

연령군	평균(±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i>F</i>
3세	7.11(±2.13)			
5세	6.95(±2.74)	1.514	2	0.252
7세	6.57(±2.42)			

3.2. 의사소통 단절시 나타나는 회복전략

3.2.1.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회복전략의 종류

우선 큰 유형분류로, 3세는 수정유형보다 반응유형이 유의하게 많았고, $t(17,11.24) = -5.685, p < .001$, 5세도 마찬가지였다, $t(17,49.64) = 4.950, p < .001$ (표 15). 연령에 대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수정유형을 더 적게 사용하고, $F(28858) = 4429.137, p = .02$, 반응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F(2,12418) = 5.829, p = .005$ (표 16). 연령별로는 7세가 3세보다 유의하게 수정유형을 많이 사용하였고, 7세가 3세와 5세보다 유의하게 반응유형을 많이 사용하였다(표 17).

표 15. 총 회복전략 중 수정 유형과 반응 유형의 비율: 연령 내 비교

연령군	전략	평균(±표준편차)	자유도	t
3세	수정유형	18.04(±23.85)	17	5.685***
	반응유형	81.96(±23.85)		
5세	수정유형	21.81(±24.81)	18	4.950***
	반응유형	78.18(±24.81)		
7세	수정유형	45.50(±43.25)	20	-0.231
	반응유형	49.73(±43.49)		

*** $p < 0.001$.

표 16. 총 회복전략 중 수정 유형과 반응 유형의 비율: 연령별 비교

전략	연령군	제공합	자유도	F
수정 유형	3세	4429.137	2	4.188*
	5세			
	7세			
반응 유형	3세	6209.203	2	5.829**
	5세			
	7세			

* $p < 0.05$. ** $p < 0.01$.

표 17. 총 회복전략 중 수정 유형과 반응 유형의 비율에 대한 사후검정

전략	연령군		평균오차(I-J)	표준오차
수정 유형	3세	5세	-1.08772**	0.30224
		7세	-1.76190***	0.29516
	5세	7세	-0.71429*	0.29095
반응 유형	3세	5세	-1.08772**	0.30224
		7세	-1.76190***	0.29516
	5세	7세	-0.71429*	0.29095

* $p < 0.05$. ** $p < 0.01$. *** $p < 0.001$.

그 외 회복전략의 세부 종류로는, 수정유형 중에서는 부정확한 구어(예: 응? 어?)를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선호하였고, $F(2,12720) = 7.040$, $p = .002$ (표 18), 연령별로는 7세가 3세와, 5세보다 유의하게 즐겨 사용하였다(표 19). 반응유형 중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복을 유의하게 적게 사용하는 결과를 보였고, $F(2,2582) = 5.492$, $p = .007$ (표 18), 연령별로는 7세가 3세보다 유의하게 적게 사용하였고(표 19), 5세는 다른 연령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 단절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역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줄어들었는데, $F(2,5070) = 20.817$, $p <$

.001(표 18), 3세가 5세와 7세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다(표 19).

표 18. 총 회복전략 중 각각의 전략이 차지하는 비율

전략	연령군	평균(±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F
반복 확인	3세	0.79 (±3.37)	3.910	2	1.116
	5세	0.00 (±0.00)			
	7세	0.00 (±0.00)			
확인 요청	3세	4.61 (±9.79)	13.713	2	0.149
	5세	4.33(±11.06)			
	7세	3.06 (±7.88)			
정보 요청	3세	3.49 (±7.45)	26.303	2	0.466
	5세	3.42 (±9.79)			
	7세	1.47 (±4.67)			
부정확 한구어	3세	7.96(±15.80)	6360.178	2	7.040**
	5세	12.74(±19.62)			
	7세	40.97(±43.87)			
몸짓	3세	0.79 (±3.37)	15.361	2	0.678
	5세	1.75 (±7.65)			
	7세	0.00 (±0.00)			
부적절 한반응	3세	0.39 (±1.68)	0.977	2	1.116
	5세	0.00 (±0.00)			
	7세	0.00 (±0.00)			
반복	3세	24.74(±13.37)	1291.866	2	5.492**
	5세	15.64(±16.73)			
	7세	8.42(±15.59)			
해석	3세	2.86 (±5.83)	8.996	2	0.226
	5세	4.03 (±6.79)			
	7세	3.23 (±6.23)			

(계속)

전략	연령군	평균(±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F
추가 설명	3세	10.95(±11.56)	1001.902	2	1.659
	5세	25.65(±18.16)			
	7세	19.80(±24.97)			
핵심 단어	3세	5.09 (±9.51)	76.682	2	0.281
	5세	7.78 (±14.33)			
	7세	7.37 (±16.31)			
구어 확인	3세	10.50(±11.50)	229.720	2	0.993
	5세	15.37(±17.10)			
	7세	8.77(±16.15)			
비구어 확인	3세	6.49(±12.45)	100.733	2	1.101
	5세	5.33 (±9.03)			
	7세	4.54 (±9.58)			
부적절 한반응	3세	21.32(±17.89)	2535.224	2	20.817***
	5세	2.63 (±8.36)			
	7세	0.00 (±0.00)			

* $p < 0.05$. *** $p < 0.001$.

표 19. 총 회복전략 중 각각의 전략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사후검정

전략	연령군		평균오차(I-J)	표준오차
반복 확인	3세	5세	0.79365	0.61574
		7세	0.79365	0.60131
	5세	7세	0.00000	0.59272
확인 요청	3세	5세	0.27810	3.15861
		7세	1.55483	3.08457
	5세	7세	1.27673	3.04055
정보 요청	3세	5세	0.06821	2.47123
		7세	2.01634	2.41331
	5세	7세	1.94713	2.37886
부정확 한구어	3세	5세	-4.78881	9.88633
		7세	-33.01656**	9.65459
	5세	7세	-28.22684*	9.51680
몸짓	3세	5세	-0.96074	1.56515
		7세	0.79365	1.52849
	5세	7세	1.75439	1.50665
부적절 한반응	3세	5세	0.39683	0.30787
		7세	0.39683	0.30065
	5세	7세	0.00000	0.29636
반복	3세	5세	9.10321	5.04483
		7세	16.32316**	4.92657
	5세	7세	7.21996	4.85676
해석	3세	5세	-1.16615	2.07681
		7세	0.03732	2.02813
	5세	7세	1.16615	1.99919
추가 설명	3세	5세	-14.70673	8.12008
		7세	-8.85101	7.92974
	5세	7세	5.85572	7.81657

(계속)

전략	연령군		평균오차(I-J)	표준오차
핵심 단어	3세	5세	-4.00014	5.43510
		7세	-2.69270	5.30770
구어 확인	5세	7세	1.30744	5.23195
	3세	5세	-4.87265	5.00382
비구어 확인		7세	1.73026	4.88653
	5세	7세	6.20691	6.60291
부적절 한반응	3세	5세	18.69049***	3.62979
		7세	21.32207***	3.54471
	5세	7세	2.63158	3.49412

* $p < 0.05$. ** $p < 0.01$. *** $p < 0.001$.

3.2.2. 의사소통 단절 중 회복 성공 비율

의사소통 단절 중 회복에 성공하는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높아졌다, $F(2,14170) = 23.291$, $p < .001$ (표 20). 연령별로는 5세가 3세보다, 7세가 3세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5세와 7세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1).

표 20. 의사소통 단절 회복 성공 비율

연령군	평균(±표준편차)	제곱합	자유도	F
3세	64.71(±29.99)			
5세	96.54 (±8.94)	1085.233	2	23.291***
7세	100.00 (±0.00)			

*** $p < 0.001$.

표 21. 의사소통 단절 회복에 성공하는 비율에 대한 사후검정

	연령군	평균오차(I-J)	표준오차
3세	5세	-31.82409***	5.73679
	7세	-35.28900***	5.60231
5세	7세	-3.46491	5.52236

*** $p < 0.001$.

제4장 고찰

대화유창성을 측정할 때에는 의사소통 단절의 횟수, 의사소통 단절 회복 소요 시간의 비율, 전체 발화 중 침묵 시간의 비율, 대화의 정보력이 중요한 변수라고 한다.⁷ 또한 만일 한 쪽 화자가 일방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대화의 주제가 부족해도 유창하지 못한 대화가 된다고 하였다. 앞의 변수들 중에서도 의사소통 단절은 대화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5,6,8,9,13,14,21-29} 선행연구에서도 대화단절 변수는 장애군과 정상군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음이 많이 보고되었다.^{6,13,20,23-26,29} 그러나 대화유창성에 대해서는 한국어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직 없으며, 의사소통 단절에 대한 회복능력 또한 정상군에서의 발달 특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아직 없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라 대화유창성에 유의한 차이가 보였으며,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의사소통 회복전략의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대화유창성에 관하여, 첫째, 단절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높은 연령군에서 단절 횟수와 단절 회복 소요 시간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아, 언어능력이 높을수록 이 변수들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⁶ 연령별로는, 단절 횟수와 회복 소요 시간의 비율은 3세와 7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5세는 타 연령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화단절에 관한 요소는 3세부터 7세까지 발달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침묵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침묵 시간의 비율은 5세와 7세간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3세만이 다른 군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3세부터 5세까지는 발달이 이루어지지만 5세부터 7세까지는 뚜렷한 발달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대화정보력 점수 중에서 정보력 2가 청자가 느끼는 어색한 침묵의 비율이었는데, 3, 5, 7세 모든 군 간에 유의하게 침묵이 줄어든다고 청자가 느끼고 있었다. 이는 청자가 느끼기에는 5세와 7세간에도 유의한 발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셋째, 다른 대화정보력 점수인 아동의 일방적인 발화 비율에서는 3세가 7세보다 유의미하게 일방적인 발화

가 많았으나 5세는 다른 군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정보력 3인 청자가 느끼는 유용한 정보교환의 양에서는 3, 5, 7세 모든 연령군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정보교환이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언어능력이 좋을수록 정보력 점수가 좋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고,⁶ 정보력과 관련된 대화유창성은 3세부터 7세까지 꾸준한 발달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의사소통 단절 중 회복에 성공하는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절에 성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5세와 7세의 결과는 비슷하였고 3세만 유의하게 5, 7세와 차이가 났다. 따라서 단절에 성공하는 능력은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의하게 발달하지만, 5세부터는 발달속도가 느려 뚜렷한 발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절 회복 성공 비율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회복전략의 종류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수정 유형'을 김지숙 등(2004)은 '의미협상전략'으로 구분하였는데,¹³ 의미협상전략은 다른 전략들보다 늦게 발달하는 전략이며, 4세 아동보다는 5세 아동이 즐겨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¹³ 본 연구 결과에서도 3세와 5세 아동들은 수정 유형을 반응 유형보다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응 유형의 사용 비율이 높아져, 7세에서는 두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대화전략 중 의미협상 전략은 5세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고되었는데,^{44,45} 본 연구에서는 3세에서도 수정 유형을 사용하는 아동들이 있었다. 따라서 수정 유형은 반응 유형보다 늦게 발달하는 전략이지만 3세 아동들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다.

세부 종류에 대해서는, 먼저, 연령별로 선호도를 살펴보면, 수정 유형 중에서는 7세는 부정확한 구어수정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른 연령과 비교하여도 3세와 5세보다 유의하게 부정확한 구어수정을 선호하였다. 이는 Jenkins(1997)의 연구결과 중 성인이 부정확한 구어를 가장 선호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여,¹⁴ 7세들은 성인과 비슷한 대화기술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반응 유형 중에서는, 3세는 단순반복을 가장 즐겨 사용하였으나, 5세와 7세는 추가설명을 가장 선호하였다. 단순반복은 3세가 7세보다 유의하게 많이 사용 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단순

반복 반응이 많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9,14,21} 부적절한 반응은 3세가 5세와 7세보다 유의하게 많았는데, 특히 5세와 7세는 부적절한 반응이 거의 없었고, 3세만이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사소통에 대한 판단능력이 좋아지며 회복 기술이 발달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화유창성이 좋아지지만, 특히 5세와 7세는 대화유창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 항목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3세부터 5세까지는 대화유창성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3, 4, 5세를 비교하여 3세부터 5세까지의 발달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동의 대화발달을 더 정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 회복전략 측면에서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수정 유형이 반응 유형보다 늦게 발달하지만 3세 아동도 수정 유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3세 아동의 평균 연령이 46개월로, 거의 4세에 가깝기 때문에, 2세부터 4세까지를 6개월 월령단위로 묶어 수정유형의 발달을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3, 5, 7세 아동의 대화유창성과 대화단절시 회복 능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들의 대화 100 차례 중 침묵 구간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율, 의사소통 단절 횟수, 의사소통 단절 회복에 사용된 시간의 비율, 의사소통 단절 회복에 성공한 비율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청자가 느끼는 아동의 어색한 침묵구간, 아동의 일방적인 발화 정도, 유용한 정보교환의 양을 5점 척도로 알아보았다. 또 의사소통 단절시 아동의 반응에 따라 단절 회복 시 사용한 전략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침묵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었고, 청자가 느끼는 아동의 어색한 침묵구간도 줄어들었다. 따라서 침묵구간에 대한 요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달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자가 느끼는 아동의 일방적인 발화정도는 줄어들었고, 유용한 정보교환의 양은 늘어났다. 또, 의사소통 단절 횟수와 단절 회복에 사용된 시간의 비율도 줄어들었고, 의사소통 단절 회복에 성공한 비율 역시 줄어들었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화유창성이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절 회복 시 사용한 전략의 종류에는, 연령이 낮은 아동일수록 수정유형보다 반응유형을 즐겨 사용하였고, 7세 아동은 두 유형 간 차이가 없었다. 반응유형 중에서는, 3세 아동은 단순반복을 7세보다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여 연령이 어릴수록 단순반복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부적절한 반응을 3세 아동이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여, 3세 아동이 대화 수정에 덜 유창함을 알 수 있었다. 수정 유형 중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확한 구어 반응이 많아졌는데, 성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회복전략이 부정확한 구어였다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발달한 유형의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아동의 대화유창성 발달을 수치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 아동의 의사소통 단절 회복전략 발달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앞으로의 후속연구로는, 수정유형의 발달과정이

어떠한지 좀 더 어린연령부터 실험하여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또, 성인의 대화유창성을 연구하여 아동과 비교하여, 성인의 대화유창성이 어느 연령대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다른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 발달과정과 비교하여, 어떠한 영역 발달이 화용영역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이승복, 이희란. 언어발달(6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 2) 박현숙. 의사 소통 전략과 의사 소통 성취도의 측정 및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3) Tye-Murray N. Let's converse: a "how-to" guide to develop and expand conversational skills of children and teenagers who are hearing impaired. Washington D.C.(EUA): A.G. Bell Association for the Deaf; 1994.
- 4) 이현진, 박영신, 김혜리. 언어발달(3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
- 5) McTear M, Conti-Ramsden G. Pragmatic disability in children. San Diego(CA): Singular Publishing co.; 1992.
- 6) Tye-Murray N. Conversational fluency of children who use cochlear implants. Ear Hear 2003;24:82S-9S.
- 7) Erber N. Communication therapy for adults with sensory loss (2nd Ed.). Melbourne(Australia): Clavis Publishing; 1996.
- 8) 진제희. 상호 작용 상황에서 나타난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전략 양상. 이중언어학 2000;17:339-58.
- 9) Alexander D, Wetherby A, Prizant B. The emergence of repair strategies in infants and toddlers. Semin Speech Lang 1997;18:197-212.
- 10) Faerch C, Kasper G. Strategies in interlanguage communication. White Plains(NY): Longman; 1983.
- 11) Cele-Muricia M, Dornyei Z, Thrurrell S. Communicative competence: a pedagogically motivated model with content specifications. Issues Appl Ling 1995;6:5-35.
- 12) Dornyei Z, Scott ML. Communication strategies in a second language: definition and taxonomies. Lang Learn 1997;47:173-210.

- 13) 김지숙, 김영옥. 정신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의 의사소통 전략과 대화연쇄 유형 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2004;9:83-101.
- 14) Jenkins LA. comparison of communication breakdowns and repair strategies used by cochlear implant children from two different methodologies. Washington D.C.(EUA): WUSM Program in Audiology and Communication Sciences; 1997.
- 15) 김성수, 이상경. 자발적 발화 표본 수집 방식으로서의 대화, 자유놀이 및 이야기 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2008;13:44-62.
- 16) 최윤희. 정상노인의 대화와 그림설명 발화간 특성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7) Evans JL, Craig HK. Language sampling collection and analysis: interview compared to freeplay assessment contexts. J Speech Hear Res 1992;35:343-53.
- 18) Longhurst TM, Grubb S. A comparison of language samples collected in four situations. Lang Speech Hear Serv Sch 1974;5:71-8.
- 19) Southwood F, Russell AF. Comparison of Conversation, freeplay, and story generation as methods of language sample elicitation. J Speech Lang Hear Res 2004;47:366-76.
- 20) Wagner CR, Nettelbladt U, Sahlen B, Nilholm C. conversation versus narration in pre-school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Int J Lang Comm Dis 2000;35:83-93.
- 21) Golinkoff RM. 'I beg your pardon?': the preverbal negotiation of failed messages. J Child Lang 1986;13:455-76.
- 22) Wexler K, Mysak E. Disfluency characteristics of 2-, 4-, 6-year old males. J Fluency Disord 1982;7:37-46.
- 23) Longhurst TM, Berry GW. Communication in retarded adolescents: response to listener feedback. Am J Ment Defic 1975;80:158-64.
- 24) Brinton B, Fujiki M. Responses to requests for conversational repair by

-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J Speech Hear Res* 1991;34:1087-95.
- 25) Calculator SN, Delaney D. Comparison of nonspeaking and speaking mentally retarded adults' clarification strategies. *J Speech Hear Disord* 1986;51:252-9.
- 26) Brady NC, McLean JE, McLean LK, Johnston S. Initiation and repair of intentional communication acts by adults with severe to profound cognitive disabilities. *J Speech Hear Res* 1995;38:1334-48.
- 27) Maclahlan BG, Chapman RS. Communication breakdowns in normal and language learning-disabled children's conversation and narration. *J Speech Hear Disord* 1988;63:2-7.
- 28) Paul R, Cohen DJ. Responses to contingent queries in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Appl Psycholinguist* 1984;5:349-57.
- 29) Wang AC. Communication breakdowns and repair strategies in oral communication and total communication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Washington D.C.(EUA): WUSM Program in Audiology and Communication Sciences; 1997
- 30) 김영태.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2002
- 31) Fujiki M, Brinton B, Todd CM. Social skills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Lang Speech Hear Serv Sch* 1996;27:195-202.
- 32) Craig H, Washington J. The access behaviors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 Speech Lang Hear Res* 1993;36:322-37.
- 33) Fujiki M, Willbrand M. A comparison of four informal methods of language evaluation. *Lang Speech Hear Serv Sch* 1982;13:42-52.
- 34) 김기순, 신지철, 이기학, 배소영.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이야기 회상 산출 능력. *언어청각장애연구* 2007;12:1-15.
- 35) 신수진, 박은숙, 이기학, 배소영. 초등 저학년 아동의 학년에 따른 이야기 산출 능력. *언어청각장애연구* 2007;12:16-31.

- 36) Wetherby AM, Prizant BM. Communication and Symbolic Behavior Scales manual. Baltimore(MD): Brookes; 2003.
- 37) Owens RE. Language disorders: a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Boston(MA): Pearson Education, Inc; 2004.
- 38)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PRES).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2003.
- 39) 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장혜성.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2004.
- 40)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그림어휘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995.
- 41) 김향희, 나덕렬. 아동용 한국판 보스톤 이름대기검사(K-BNT-C). 서울: 학지사; 2007.
- 42) Pratt C, Bryant P. Young children understand that looking leads to knowing (so long as they are looking into a single barrel). Child Dev 1990;47:116-29.
- 43) Nayer SL, Graham SA. Children's communicative strategies in novel and familiar word situations. First Lang 2006;26:403-20.
- 44) 김영욱. 일반아동과 정신지체아동의 맥락정보 활용과 의사소통 전략 사용비교. 특수교육저널;2003;4:113-29.
- 45) Abbeduto L, Short-Meyerson K, Benson G, Dolish J. Signaling of noncomprehension by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mental retardation: effects of problem type and speaker identity. J Speech Lang Hear Res 1998;40:20-32.

부록-1 의사소통 단절의 기준

의사소통 단절의 기준

1. 청자가 표정, 눈짓, 발화로 “이해하지 못함” 표시를 할 경우¹³.
 2. 질문과 대답이 관련없이 연속하여 지속되는 구간은 분석에서 제외한다¹³.
 3. 의사소통 단절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또 단절이 생길 경우에는 의사소통 단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

부록-2. 검사자가 느끼는 아동의 정보 제공력 정도

대화 중 아동의 정보 제공력 ⁶		
	아니다	그렇다
1. 아동이 일방적인 말이 많았다.	1	2 3 4 5
2. 어색한 침묵(pause)이 있었다.	1	2 3 4 5
3. 의미있는 정보 교환이 있었다.	1	2 3 4 5

부록-3. 의사소통전략 분류

전략 분류		특성	예
수정	반복확인(repeat)	원 발화를 완전히 똑같이 말하며 확인하는 것.	A: 놀이공원 가고싶는데 B: 놀이공원 가고싶어?
	확인요청 (confirmation strategy)	자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원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확인하는 것.	A: 놀이공원 가고싶는데 B: 놀이공원이 뭐라고?
	정보요청(specific request for information)	반복이나 부분반복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	A: 놀이공원 가고싶는데 B: 어디 가고싶다고?
	부정확한 구어 (nonspecific verbal)	상투적으로 되묻는 말.	응? 어? 뭐라고?
	몸짓 (nonverbal)	몸짓이나 표정으로 이해하지 못함을 표현하는 것.	어깨 으쓱거림
	부적절한 반응 (inappropriate response)	이해하지 못함 표현이나 정보요청 없이 원 발화와 관계없는 내용을 말하는 것.	A: 놀이공원 가고싶는데 B: 난 동생이랑 놀거야
반응	반복(repeat)	원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	A: 놀이공원 가고싶는데 B: 뭐라고? A: 놀이공원 가고싶는데

(계속)

전략 분류	특성	예
반응	해석(rephrase)	새로운 단어나 구문으로 반복하는 것. A: 놀이공원 가고싶는데 B: 뭐라고? A: 놀이공원에 갔으면 좋겠다고
	추가 설명(elaboration)	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 A: 놀이공원 가고싶는데 B: 뭐라고? A: 일요일에 놀이공원, 테마파크 가고싶어
	핵심단어(key-word)	원 내용중 중요한 단어만 반복하는 것. A: 놀이공원 가고싶는데 B: 뭐라고? A: 놀이공원
	구어 확인(verbal feedback)	청자가 요청한 정보만을 구어로 제시하는 것. A: 놀이공원 가고싶는데 B: 놀이공원이 뭐? A: 가고싶다고
	비구어 확인(nonverbal feedback)	몸짓으로 청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A: 놀이공원 가고싶는데 B: 놀이공원 가고싶다고? A: (끄덕임)
	부적절한 반응(inappropriate response)	질문을 무시하거나 원 발화와 관계없는 내용을 말함. A: 놀이공원 가고싶는데 B: 뭐라고? A: 재밌을거같은데

부록-4. 부모교사 질문지

본 질문지는 아동들의 대화 능력 발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각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모든 자료는 본 연구용으로만 사용되며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연구자: 권혜주

아동이름: _____ (남, 여) 검사날짜: _____
생년월일: _____ (;) 검사장소: _____
교육기관: _____ 검사자 : _____

1. 아동은 청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2. 아동은 수업시간에 또래에 비하여 집중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3. 아동은 언어발달에서 또래에 비하여 지체된 점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4. 아동은 지적 능력에서 또래에 비하여 지체된 점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5. 아동은 학업성취도에서 또래에 비하여 지체된 점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6. 아동은 수업 중 교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7. 아동에게 특정한 질환이나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기록해 주세요.

부록-4. 부모동의서

비디오-오디오 녹화 동의서

본 실험은 만 3, 5, 7세 아동의 대화능력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연구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석사학위과정 권혜주). 아동의 실험 내용은 약 20~30분간 그림카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실험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며, 그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녹음하게 됩니다. 비디오 자료는 논문 작성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실험 이외에 진행하게 되는 검사는 언어검사로 아동 개별로 20분정도 소요되며,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유자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 내용은 어휘력검사(그림어휘력검사, K-BNT - C)와 전반적인 언어영역 선별검사(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표현언어 발달 척도: PRES)입니다. 이 3가지 검사도구들은 모든 대학병원이나 언어치료실에서도 언어능력 측정이나 장애 진단시 사용되는 검사도구이며, 실험 후 1주일 내에 대학병원양식의 검사 결과지(언어연령, 또래에 비교한 언어 능력 수준)를 밀봉하여 부모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이 검사 및 실험에 동의하시면, 아래의 내용에 서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 언어평가와 실험과정을 녹화·녹음한 자료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논문 작성 및 교육용 자료로만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날 짜 : 2009 년 월 일

보 호 자 :

검 사 자 :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부록-6. 대화 주제

대화 주제

1. 자전거를 탔던 이야기
 2. 넘어져서 다친 이야기
 3. 병원에 간 이야기
 4. 열이 나서 아팠던 이야기
 5. 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갔던 이야기
 6. 컴퓨터 게임 이야기
 7. 집안을 어지럽힌 이야기
 8. 생일파티 이야기
 9. 외식한 이야기
 10. 키우고 싶은 동물 이야기
 11. 놀이공원에 갔던 이야기
 12. 친구와 싸운 이야기
 13. 동물원에 간 이야기
 14. 놀이터 이야기
 15. 부모님에게 야단맞은 이야기
 16. 설날 세배 이야기
 17. 눈이 온 이야기
 18. 엄마(아빠)랑 목욕한 이야기
 19. 산타할아버지 이야기
 20. 지하철(기차) 이야기
-

부록-7. 주제 그림



부록-8. 이야기 진행 절차

이야기 진행 절차

- 이야기는 아동에게 개인사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으로 아동에게 이야기를 요구한다. 반응은 단순히 “어, 응, 그래”가 아닌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반응을 하도록 한다.

- 예: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이야기

“OO야, 선생님은 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 자전거 타고 신나게 달리는데, 저쪽에서 어떤 자전거가 오는거야. 그래서 팡하고 부딪쳤지, 넘어져서 손바닥이랑 무릎에서 피가 났어. 아파서 울었어.”

“너도 이런 일 있어?”

“너도 자전거 탈 줄 알아?”

ABSTRACT

Assessment of Preschoolers' Conversational Fluency and Communicative Repair Strategy

Kwon, Hye Joo

The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Pragmatic ability is the knowledge on how to utilize linguistic rules and it becomes a cornerstone of language ability in real situations. Almost every language disabled children has a pragmatic language ability problem, so it is important that this is accurately assessed and treated. In Korea, there's lack of standardized assessment tools for pragmatic language ability and only story retelling is commonly used as a non-standardized assessment. Moreover, there are no conversational assessment tools, and conversation includes speaker-listener-interaction. Conversational fluency and a communication repair strategy reflect pragmatic language ability and many studies about these have been done in foreign countries. Still, there are only a few Korean studies about children's communication ability and there are no Korean studies about conversational fluency. This study focused on the conversational fluency and communication repair strategies of 3-, 5-, 7-year-old children with normal development and we tried to reveal the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development.

The subjects are boys living in Seoul. The number of subject was 58: 18

in the 3-year-old group, 19 in the 5-year-old group and 21 in the 7-year-old group.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in a silent room with an adult female experimenter, who was blinded ab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she was unknown by any of the subjects. The experimenter picked a picture among 20 topic pictures and suggested it as a conversation topic. This way to suggest conversational topic is standardized from some previous articles. All the progress was recorded in a video file. After the experiment ended, the researcher watched the video and made it to scripts of each child and the researcher analyzed 100 turns of the script. The analyzed elements are as follow: 1) elements about conversational fluency: the frequency of conversation breaking down, the percent of time from when the conversational breakdown happened to when the conversation was repaired, the percent of time the two spent in silence, the researcher's impressions and reactions to the children and their conversations were scored using five-point rating scales and the number of picked topic pictures was assessed; 2) elements about conversational breakdown: conversation repair strategies and the percent of successful repair of the broken convers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percent of silent time and the duration of a scaled awkward pause were significantly reduced with age. Second, one-way conversat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and meaningful exchange of information i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age. Therefore, the listener's impression about the fluent conversation gets better with age. Third, the frequency of conversational breakdown and time spent to repair it was significantly reduced with age. Fourth, younger children prefer a receptive strategy to an expressive strategy, and the 7-year-old boys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these strategies. For the receptive strategy, the 3-year-old boys significantly used repetition strategy and inappropriate strategy more than did the 7-year-old boys. For the expressive strategy, a non-specific verbal

type of expressive strategy was significantly preferred with increasing age.

These results will clinically contribute to understanding and putting numerical values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children's conversational fluency and their conversational breakdown repair strategy.

Key words : child, conversation assessment, conversational fluency, communication breakdown, conversational breakdown, repair strategy